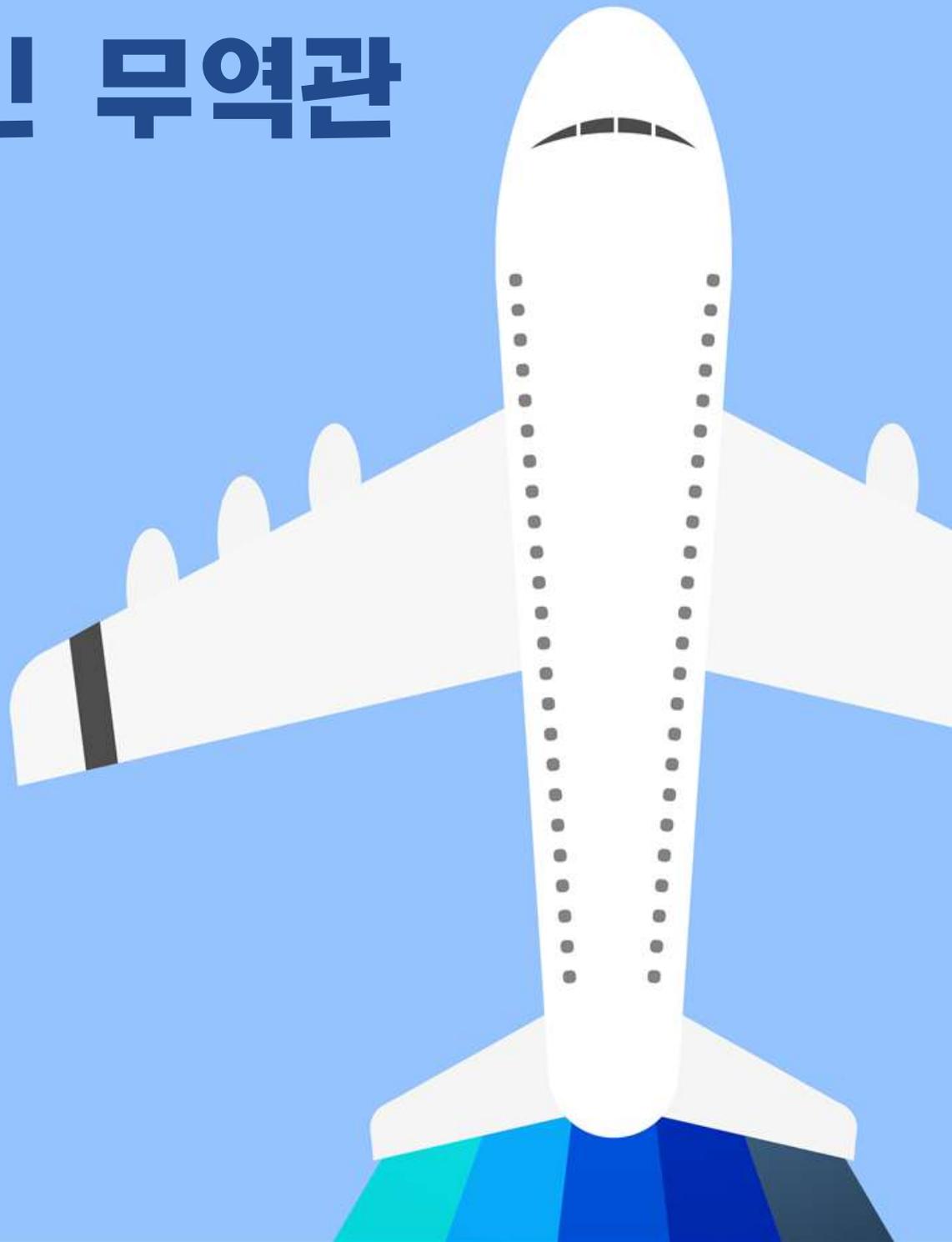


2022 해외출장 가이드

베트남

호치민 무역관

HOCHIMINH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 차

I. 국가개요	1
II. 정치사회동향	3
III. 한국과의 주요이슈	6
IV. 경제 동향 및 전망	9
V. 베트남 무역 및 FDI 특징	14
VI. 한-베 교역 동향 및 특징	21
VII. 투자환경 및 입지 여건	25
VIII. 기타 유용한 정보	31

I. 국가개요

□ 일반 개황

국가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수 도	하노이
면 적	331,317km ² (한반도의 약 1.5배) 남북 1,700km, 해안선 3,200km
인 구	98,510,000명 (2021년 기준, 베트남 통계청 통계)
남녀 성비	49.8(남) : 50.2(여)
행정구역	5개의 중앙직할시와 58개 성으로 구성
5개 중앙직할시	호치민(899만 명), 하노이(805만 명), 하이퐁(203만 명), 껀터(124만 명), 다낭(113만 명)
공용어	베트남어
인 종	킨족(Kinh, 전인구의 85.3%) 등 54개 민족
종 교 (2013)	종교 인구 약 2,400만 명 중 불교(45.8%), 가톨릭(27.1%), 개신교(6.3%), 기타 (20.8%) 등
기 후	북부 아열대성, 남부 열대몬순
시 차	한국보다 2시간 늦음(G.M.T + 7시간)
한-베 수교일자	1992.12.22
화폐 단위	베트남 동(VND, Vietnamese Dong)
환 율	1US\$ = 23,045 VND(2022년 5월 기준)
정치제도	베트남 공산당 1당 체제
당서기장	Nguyen Phu Trong(응우옌 푸 쯡)
국가주석	Nguyen Xuan Phuc(응우옌 쉰언 푸)
총 리	Pham Minh Chinh(팜 민 찐)
국회의장	Vuong Dinh Hue(브엉 딘 후에)

□ 베트남 역사

시 기	기 간	비 고
1차 중국지배	B.C.111 - AD 972	- 중국 한나라에 복속 - 쩡 자매 봉기
전기 Le(레, 黎)왕조	980 - 1009	- Le Hoan이 송나라를 물리치고 건국
Ly(리, 李) 왕조	1009 - 1225	- 최초의 자주국가 - 이 용상 왕자 고려로 망명. 화산이씨 시조
Tran(쩐, 陳) 왕조	1225 - 1400	- 몽고침입 격퇴
후기 Le(레, 黎)왕조	1427 - 1789	- Le Loi가 명나라를 격퇴하고 건립
남북 분립기	1789 - 1801	- 북 Trinh(쩐, 鄭)씨와 남 응원(nguyen, 阮)씨 대립
응원(nguyen, 阮)왕조	1802 - 1859	- 현재의 베트남 영토 확정
프랑스 식민시대	1859 - 1954	- 아르망조약으로 프랑스 보호국으로 전락
대미 항쟁시대	1954 - 1973	- 파리평화협정(종전) - 호치민 사망(1969)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1973 - 현재	- 도이머이정책(1986)

II. 정치사회동향

1. 정치 체제와 최근 동향

□ 기본 정치 체제

- 정식 국명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공산당 1당 정치체제 하 안정적 정권 유지 중
- 공산당은 국가와 사회를 영도하는 유일세력, 국회는 국가 최고권력기관, 국가 주석은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 정부는 국가 최고행정기관이라고 헌법에 명시됨

□ 최근 정치동향

- 베트남 정부는 1986년부터 추진한 도이머이(刷新)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개혁·개방을 통한 국가발전을 지속 추진함
- 공산당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체제안정을 위한 국민통합과 경제개혁 가속
- 부정부패 척결 지속 추진 및 개혁개방 부작용 해소 노력
 - 개혁·개방 추진 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당원 및 관료의 부정부패, 각종 범죄 확산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하여 ‘부패방지법’ 제정 등 부패 척결 강조
 - 농촌 및 소수민족 등 경제발전 소외 계층을 위해 농촌 개발, 빈곤 퇴치, 소수민족 배려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2021년 공산당 전당대회(2021년 1월 말 ~ 2월 초)에서 현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선출됨
 - 베트남 핵심 지도부는 4인 체제가 기본이며, 당서기장(서열 1위)에 응우옌 푸 쯙(NGUYEN PHU TRONG), 국가주석(서열 2위)에 응우옌 쑤언 폭(NGUYEN XUAN PHUC), 총리(서열 3위) 팜 민 쩐(PHAM MINH CHINH), 국회의장(서열 4위) 브엉 딘 후에(VUONG DINH HUE)가 지명
 - 해당 지도부의 취임기간은 2021 ~ 2026까지 예정되어있음

2. 대외관계 및 사회적 특징

□ 대외관계

- 실리적이고 능동적인 경제외교를 통해 자국의 세계 경제 통합과 개방·개혁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는 개방적인 외교기조를 유지
- ‘독립, 자존, 평화, 협력, 발전’과 ‘개방, 다양화, 다변화’라는 기본 원칙 하 중국, 북한은 물론 미국 EU 등 모든 국가와의 선린우호관계를 유지
- 적극적인 다자외교 전개
 - 1995. 7 ASEAN 가입
 - 1998.11 APEC 가입
 - 2007 WTO 가입
 - 2008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피선
 - 2010 ASEAN 의장국 수임
 - 2017 제 25회 APEC 정상회담 개최(베트남 다낭시)
 - 2019.2 북미정상회담 주최(베트남 하노이)
 - 2020 ASEAN 의장국 수임
 - 2022.3 미-아세안 특별 정상회담 참석

□ 사회적 특징

- 근면, 성실, 인내를 갖춘 민족으로서 외세에 굴복하지 않은 자국 역사에 자부심이 매우 강함
-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고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매우 활발함
- 6성조를 가진 베트남어가 공용어이며, 중국의 영향을 받아 한자를 표기에 사용했으나, 8세기경 한자의 뜻과 음을 차용해 만든 쯔놈(Chu Nom)을 만들어 이용함. 18세기 말경 예수회 사제들이 쯔놈을 알파벳으로 옮겨 쓰면서 오늘날의 베트남 문자가 일반화됨

- 공산주의 사회임에도 국민의 종교 활동을 용인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 도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은 미신적 요소가 상존함
- 전국에 850개의 지면 신문 및 언론 편집사가 존재하며, 국영 베트남 TV 외 성별로 자체 방송국이 운영되고 있음. 국내 언론에 대해서는 현지 정보통신부(언론국)에서 인허가 및 검열함

Ⅲ. 한국과의 주요 이슈

1. 양국 정부 관계

□ 국교 수립 및 주요 협정 현황

- 1992년 12월 : 외교관계 수립 및 대사관 설치
- 1993년 11월 : 주 호치민 총영사관 설치
- 2007년 6월 : 한국-ASEAN FTA 발효
- 2015년 12월 : 한국-베트남 FTA 발효
- 2017년 11월 : 2017 APEC 정상회의
- 2018년 3월 : 한국-베트남 정상회의
- 2019년 11월 : 한국-ASEAN 특별정상회의 베트남 총리 방한, 한-메콩 정상회의 최초 개최
- 2020년 11월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
- 2022년 2월 : 수교 30주년 한국-베트남 외교장관회담

□ 정치·외교

- 한국과 베트남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2009년 합의)를 맺고 있으며,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 중
- 2018.3월 한국-베트남 정상회의를 통해 ①교역 천역 불 달성 협력, ②소재부품산업 협력, ③교통 및 인프라 협력, ④건설 및 도시개발 협력, ⑤4차 산업혁명 대응 협력, ⑥고용허가제의 6개 분야에서 MOU를 체결하는 등 협력 심화의 기틀을 마련함
- 2019년 11월 한-메콩 정상회의가 최초 개최됨. 이는 2011년부터 진행되어 온 한-메콩 협의체를 격상한 회담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을 포함한 메콩 국가들이 이에 포함됨

- 2022년 2월 수교 3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한국-베트남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정상 간 상호방문을 비롯한 교류·협력 방안과 주요 지역·국제정세 등을 논의함. 회담을 통해 한국이 계속 투자를 확대하도록 베트남 정부가 안정적 투자환경, 생산·조업 보장 등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달라고 요청함

□ 경제 협력 관계

- 국교 정상화 이래 양국 정상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 방문이 증가하고 경제·문화·예술 행사를 장애 없이 교환하고 있음
- 베트남은 한국과 실질적 협력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함과 동시에 북한과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임
- 베트남은 많은 한국기업의 생산기지로서 경제적으로 그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고, 문화 측면에서는 한류의 확산거점으로 그 비중이 커지고 있음
- 베트남은 한국 신(新)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파트너
 - 2017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공식 천명
 - 베트남은 한국의 4번째 교역국(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순)으로서 신남방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
- 베트남은 2021년 한국의 3위 수출대상국, 6위 수입대상국
 - 2021년 對베트남 무역수지는 327억 6천만 달러로 홍콩(352.2억)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무역흑자를 기록
- 한국의 주요 투자국 중 베트남(전년대비 △11.29%) 투자는 다소 감소.
 - 2021년 기준 한국의 상위 6개 투자 대상 국가(영토)는 미국, 케이만군도, 룩셈부르크, 중국, 룩셈부르크, 캐나다, 베트남 순임
 - 2021년 기준 한국의 대베트남 주요 투자 업종은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건설업 등이며, 투자금액 기준 제조업 투자 비중이 54.32%로 가장 높음

□ 친한 정서 및 한류

- 화산 이씨 등 역사적 유대감, 한류열풍 등으로 한국 및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호평 받고 있음
- 최근 베트남 내 한류는 드라마, K-pop, K-beauty, K-food 등에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관광, 도서, 교육 등 그 영역이 점차 확대 중
- 한국 문화 콘텐츠 인기는 식품, 화장품과 같은 한국 제품 판매량 증가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베트남 내 한국어 학습 수요도 확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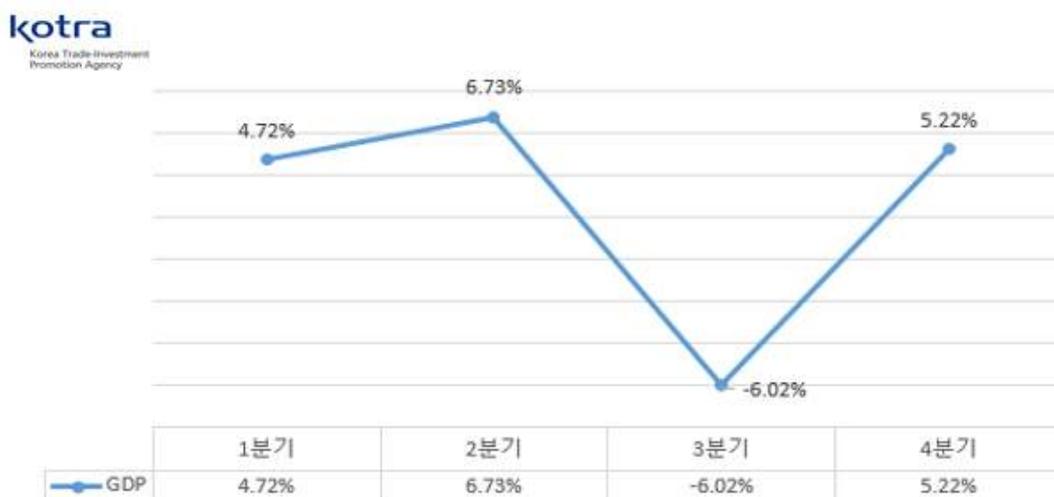
IV. 경제 동향 및 전망

1. 경제동향

□ 2021년 베트남 경제 요약

- 코로나19 및 엄격한 봉쇄 조치 여파로 2021년 경제 성장 둔화
 - 2021년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 2.58% 기록
 - 이는 최근 10년 내 최저 수준으로, '20년 4월 말 4차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가 성장 둔화의 주요 원인
 -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21년 7월부터 9월까지 강도 높은 봉쇄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물건 및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여 대부분의 상업활동이 중단됨. 공장 가동률은 30% 아래로 떨어졌으며,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 및 물류대란으로 경제활동 전반에 타격을 받음
- 3분기 역대 최저 성장률인 -6.02% 기록하였으나 4분기 5.22%로 반등, 연간 성장률 2%대 유지 및 사상 최대 교역액 달성

2021년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증감률 추이
(단위: 전년대비 %)



자료: 베트남 통계청

2021 주요 경제지표(전년대비 증가율)

GDP	소비자물가 (CPI)	산업생산지수 (IIP)	무역	외국인직접투자 (FDI)
2.58%	1.84%	4.80%	수출: 3,363억 달러(19%) 수입: 3,322억 달러(26.5%)	311.5억 달러(9.2%)

자료: 베트남 통계청, 투자기획부 등

- 코로나19 여파에도 생산 및 교역 선방, 투자도 전년 대비 9.2% 증가
 - (생산) 광업부문(특히 원유, 천연가스 채굴 등) 생산이 7.8% 감소하였으나 제조·가공업 생산이 전년대비 5.82% 성장하며 생산 전반을 견인
 - 휴대전화기 부품(22%), 텔레비전(20.7%), 가전제품(17.7%) 등 전자기기 생산이 증가하였으며, 세정제와 같은 위생용품(19.5%), 채소 및 과일 가공품을 비롯한 가공식품(14.7%), 의약품 및 화학제품(27%) 등 특정 품목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전년대비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 (교역) 총수출은 3,363억 달러로 전년대비 19% 증가, 총수입은 3,322억 달러로 전년대비 26.5% 증가했으며 주요 교역국은 중국, 미국, 한국 順
 - (FDI) 대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 총투자액은 311.5억 달러로 산업별로는 ①가공 및 제조 산업 ②전기생산 및 배전 분야 ③부동산, 도소매업 順

2. 경제전망

□ 2022년 베트남 경제 전망

- '22년 베트남의 목표성장률 6.0~6.5%
 - 2022년 경제 성장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초 World Bank, ADB 등 주요 기관들은 올해 베트남의 성장률을 6~7%로 설정

주요 기관별 2022년 베트남 GDP 성장률 전망치

현지 정부	World Bank	IMF	ADB	스탠다드차타드
6.0~6.5%	6.5% → 5.3%	6.6%	6.5%→ 6.0%	7.0%

* World Bank, ADB의 경우 1분기 이후 예상치 조정

- 1분기 베트남 경제 5.03% 성장
 - '21년 1분기 성장률인 4.72%와 '20년 1분기 성장률인 3.66% 대비 상승한 수치이나 '19년 1분기 성장률인 6.85%에 비해 낮은 수치
 - 서비스 및 제조업 부문에서 강세를 보였고, 서비스 부문의 경우 금융, 은행, 보험, 교통 및 물류 부문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농업 및 축산업 부문 또한 점진적 회복세를 보여, 농업, 임업 및 어업 부문은 2.45%의 성장률을 기록

- 부가가치세 인하를 통한 소비 촉진으로 경제 활성화 도모
 - 베트남 정부는 2월부터 일부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10%에서 8%로 인하함. 부가가치세 인하 정책은 소비자의 물가 부담이 축소됨에 따라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납세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해 생산량 증대 및 이윤 증가 예상, 경영비용 감소가 기업 경쟁력 증대 및 해외발 투자 유치 확대에 이어져 베트남 경제 회복 가속화에 기여 전망

□ 베트남 경제 기회요인과 위험요인

1) 위드코로나에 따른 관광 재개로 서비스 산업 성장

- 관광 전면 개방으로 관광수입 회복
 - 3월 15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에 대해 무비자 입국 허용 및 입국자 격리 제도 폐지 등 관광 전면 개방. 관광산업 정상화로 '22년 관광객 수는 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수입 유발효과는 175억 달러 전망

- 농촌관광 개발로 관광 상품 다양화 및 농촌 개발
 - 정부는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개발의 일환으로 환경농업부문과 관광산업이 결합된 관광모델인 전원관광 및 농업관광여행 부문 개발을 위한 계획을 발표
 - 농촌관광은 마을 관광, 농업 관광, 생태 관광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농촌관광이 전체 관광 산업의 10%를 차지하며 연간 300억 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음. 농촌 관광은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 농촌 경제 구조 변화, 전통 문화 보전, 환경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동남아시안게임 개최로 관광업 활성화 기대
 - 동남아시안게임은 격년으로 개최되는 아세안 최대 스포츠 대회로, 베트남에서 '21년 11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동남아 국가 전역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 '22년 5월 제31회 동남아시안게임이 개최되면서 베트남 관광업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

2) 경기부양책에 힘입은 내수 회복 기대

- 사회경제적 회복 및 발전프로그램 결의안 추진으로 경기부양
 - 베트남 정부는 350조 동(한화 약 18조 4,450억 원) 규모의 사회경제적 회복 및 발전 프로그램 결의안을 발표. 팬데믹 예방 및 의료 사업, 사회보장제도, 기업 지원, 공적 투자 촉진, 국가 경영 등 5개 부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거시경제 지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2~'23년 동안 부가가치세를 8%로 인하, 항공기 연료 환경보호세의 50%, 국유지 임대료의 30%, 국내 조립 및 제조 자동차 등록비용의 50%를 감면
 - 다만, 국제유가의 전례 없는 상승으로 유통 비용 등이 크게 상승하고 있어 소매업 부문 기업이 소비자 가격 인상을 검토 하는 경우가 많음

3)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

- 경제 전반의 디지털화를 위한 디지털전환 전략
 - 디지털 정부,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 글로벌 역량을 가진 디지털 기술 기업 육성 등 4가지 목표를 설정, '30년까지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기업 10만 개를 육성해 디지털 경제가 GDP의 30%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
 - 코로나 유행 이후 베트남 기업의 약 2/3가 디지털 경제에 접근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전자상거래 및 비대면 결제 시스템의 발전으로 디지털 경제의 전환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
 - 전자정부를 구축해 행정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행정체계가 개선되고,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면 FDI 증가도 기대
- 디지털 전환 관련 개선 필요 사항
 - 베트남의 디지털 전환은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음. 대기업은 기술 도입에 따른 기업 내부 관행 변화의 필요성을, 중소기업은 기술 투자 및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음.

-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 취약점 관련 베트남 정부는 사이버 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있음. 베트남은 매년 5만여 명의 IT 관련 전공자들이 배출되고 있으나 인력 수요는 '19년 이미 6만 3천여 명에 달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디지털 기술에 숙련된 IT인력 육성 시급

4) 메가 FTA, RCEP의 발효로 수출품 특혜관세 기회 증가

○ RCEP, 2022년 1월 1일 발효

- RCEP는 역내 전체를 대상으로 누적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므로 제품 조립 및 가공 분야에 경쟁력이 있는 베트남은 한국 및 중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 가공해서 일본, 한국, 호주 등에 수출할 경우 상당한 경쟁 우위 예상
- 기존 FTA 적용 시 베트남 수출품은 FTA 역외 국가에서 수입된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반면, RCEP 체결로 베트남의 주요 원재료 공급국인 한국과 중국이 RCEP으로 하나의 협정상대국이 되어 FTA 특혜관세를 누릴 기회가 더 많아질 전망

○ RCEP 발효 예상 경제효과

- 베트남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산업군은 IT, 의류, 신발, 농업생산품, 자동차, 통신 등 다양하게 분포
- 베트남 농수산물 수출기업은 RCEP을 통해 전통적으로 안정적인 시장인 일본과 최대 잠재시장인 중국 두 시장에서의 확장을 목표로 두고 있음
- 한편 유사한 농수산물을 수출하는 아세안 국가와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 있어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
- RCEP을 통해 베트남을 포함한 ASEAN 지역이 생산기지로서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RCEP의 경우, 다른 협정과 달리 의류에 대한 원산지 결정 기준이 가공공정 기준이 아닌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베트남 섬유 제품 수출자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됨
- 반면 베트남 소재 섬유 및 의류 부자재 기업들은 RCEP으로 인해 중국산 자재의 무관세 수입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질 위험도 있음

V. 베트남 무역 및 FDI 특징

1.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 개 황

- '21년 코로나19 대유행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교역 규모가 증가
 - '21년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3,362억 5천만 달러, 수입액은 전년 대비 26.5% 증가한 3,322억 5천만 달러를 기록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억 달러)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 출	2,137.7	2,447.2	2,634.5	2,814.7	3,362.5
수 입	2,110	2,375.1	2,535	2,624.0	3,322.5
무역수지	26.7	72.1	99.5	191	40

자료: 베트남 통계청

□ 수 출

- 베트남의 주요 수출 품목은 휴대전화기 및 부품, 전기전자제품 및 관련 부품, 섬유·의류제품, 신발류, 기계·설비류가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
- 특히 2014년 이래 휴대 전화기가 수출 1위 품목으로 부상했고, 2019년부터는 컴퓨터를 포함한 전기·전자제품(부품 포함)이 섬유 제품을 제치고 수출 2위 품목으로 부상
 - 이에 따라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기·전자 관련 제조 산업이 베트남 수출을 주도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
- 주요 수출 시장은 미국, EU, 중국, 일본, 한국 등임. 특히 최대 수출국인 미국으로 섬유·의류제품을 많이 수출하면서 대미 무역에서 대규모 흑자 기록

베트남 주요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백만 달러)

품 목 명	2018	2019	2020	2021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0,003	51,827	50,880	57,537
섬유/직물제품	30,447	32,571	29,478	32,753
전기전자제품/부품	29,446	35,591	44,668	50,828
기계/플랜트 및 부품	16,528	18,304	27,042	38,344
신발류	16,297	18,299	16,551	17,751
수산물	8,831	8,572	8,384	8,886
목제품	8,855	10,526	12,323	14,809
수송수단 및 부품	7,985	8,500	9,058	10,616
철강제품	4,558	4,160	3,035	11,795
채소	3,822	3,764	3,259	3,551
기 타	67,951	71,337	76,793	89,440
합 계	243,483	264,189	281,471	336,310

자료: 베트남 관세청

베트남의 주요 수출국 수출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순번	국가명	2017	2018	2019	2020	2021
1	미 국	41,608	47,526	61,347	77,077	96,293
2	중 국	35,463	41,268	41,414	48,905	56,009
3	한 국	14,823	18,205	19,720	19,107	21,945
4	일 본	16,841	18,851	20,413	19,284	20,128
5	홍 콩	7,583	7,955	7,156	10,437	11,996
6	네덜란드	7,106	7,076	6,881	6,999	7,686
7	독 일	6,364	6,869	6,555	6,644	7,286
8	인 도	3,756	6,542	6,674	5,235	6,259
9	태 국	4,786	5,494	5,272	4,917	6,161
10	영 국	5,424	5,776	5,758	4,955	5,765

자료: 베트남 관세청

□ 수 입

- 베트남의 주요 수입품은 각종 기계·설비 및 부품, 휴대 전화기 부품(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의류 원단, 플라스틱 원료 등 완제품 생산을 위한 각종 중간재·자본재 중심
- 특히 베트남은 부품·소재와 같은 저변 산업이 취약해 중국, 한국, 일본, 대만 등에서 이를 수입하며, 산업 경기가 호조일 때 원부자재 수입이 늘어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

베트남 주요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백만 달러)

품 목 명	2018	2019	2020	2021
전자제품 및 컴퓨터	42,197	51,353	63,971	75,440
기계/플랜트 및 부품	33,727	36,748	37,251	46,296
각종 전화기 및 부품	15,865	14,615	16,645	21,434
의류(원단)	12,774	13,276	11,875	14,324
철강제품	9,890	9,507	8,066	11,523
플라스틱 원료	9,066	8,991	8,397	11,685
기타 금속	7,249	6,385	6,052	8,611
플라스틱 제품	5,893	6,538	7,274	7,959
기 타	89,833	95,110	92,412	134,962
합 계	236,687	253,070	262,700	332,234

자료: 베트남 관세청

베트남의 주요 수입 국가
(단위: 백만 달러)

순번	국가명	2017	2018	2019	2020	2021
1	중 국	58,229	65,438	75,452	84,187	109,874
2	한 국	46,734	47,497	46,935	46,895	56,155
3	일 본	16,592	19,011	19,526	20,341	22,648
4	대 만	12,707	13,228	15,173	16,701	20,772
5	미 국	9,203	12,753	14,365	13,713	15,270
6	태 국	10,495	12,023	11,656	10,968	12,564
7	말레이시아	5,860	7,450	7,291	6,575	8,148
8	오스트레일리아	3,182	3,984	4,456	4,677	7,946
9	인도네시아	3,640	4,918	5,703	5,382	7,587
10	인 도	3,940	4,147	4,538	4,435	6,950

자료: 베트남 관세청

2. 외국인 투자동향

□ 개 황

- 베트남판 ‘뉴노멀’, ‘위드 코로나’ 선언에 따른 경제활동 전면 재개 및 이동 제한 해제로 FDI 회복세 돌입
 - ‘22.3월까지 對베트남 누적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 건수 34,815건, 총투자금액 4,228억 달러
 - ‘22.3월 기준 FDI 프로젝트 투자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7.8% 상승하였고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 중

국가별 베트남 누적 투자 동향
(단위: 건, 백만 달러)

구분		2022. 3. 20. 기준 누계		2022. 1. 1. ~ 3. 20.		
연번	국가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한 국	9,265	78,568.18	58	83.44	1,606.82
2	싱가포르	2,866	67,564.33	40	626.59	2,289.39
3	일 본	4,828	64,410.61	33	166.34	592.40
4	대 만	2,860	35,857.43	18	219.86	323.71
5	홍 콩	2,065	28,553.98	21	191.66	581.69
6	버진 아일랜드(영)	887	22,099.00	6	38.45	55.64
7	중 국	3,372	21,964.21	48	379.52	893.87
8	네덜란드	380	13,559.00	3	0.14	627.22
9	태 국	652	13,037.83	8	16.06	147.58
10	말레이시아	669	12,848.02	5	0.40	4.53
11	미 국	1,155	10,433.81	18	97.17	137.64
합계		34,815	422,835.16	322	3,212.91	8,907.40

자료: 베트남 외국인투자청(FIA)

주: '22.3월 기준

* 총투자액은 신규 투자, 증액 투자, 지분투자를 모두 합한 금액임

- 2007년 WTO 가입에 따라 유통업, 무역업, 요식업 등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제한을 두었던 분야가 개방됨. 이에 따라 제조업에 집중되었던 외국인 투자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내륙운송업 등 일부 조건부 투자 분야 유지)

對베트남 산업별 FDI 투자 동향

연번	구분 산업	2022. 3. 20. 기준 누계		2022. 1. 1 ~ 3.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5,657	250,720.63	84	2,190.36	5,300.25
2	부동산경영	1,018	64,963.03	17	599.87	2,699.92
3	전력·가스·용수 제조 공급	179	36,380.52	51	16.92	200.43
4	호텔, 외식서비스	899	12,728.04	4	0.87	13.93
5	건설	1,775	10,936.54	7	89.47	116.88
6	도소매; 유지보수	5,653	9,133.27	89	49.06	135.70
7	물류운수	931	5,876.20	11	99.66	110.01
8	채광	109	4,900.37	1	1.98	1.98
9	교육, 양성	608	4,440.56	3	4.39	8.10
10	정보통신	2,501	4,295.55	40	34.42	66.17
11	기술과학전문	3,838	4,128.03	51	49.06	135.70
12	농, 임, 수산	520	3,744.60	4	11.37	14.89
13	예술 오락	136	3,392.24	-	-	0.17
14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83	2,908.70	1	0.45	8.27
15	의료와 사회복지	152	1,742.79	-	-	2.58
16	행정, 지원 서비스	524	993.23	5	0.80	9.81
17	금융, 은행, 보험	79	810.68	1	22.05	23.15
18	기타서비스	146	729.10	1	0.10	0.53
19	가구내 고용활동	7	11.07	-	-	-
	합계	34,815	422,835.16	322	3,212.91	8,907.40

자료: 베트남 외국인투자청(FIA)

- 기존에는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해 원부자재 수입 후 가공하여 수출하는 노동 집약적 산업 투자가 대부분이었음. 최근에는 대베트남 외국인 투자 트렌드가 유통·서비스, 프랜차이즈 등으로 다원화되고 있으며, 현지 정부도 고부가가치 산업(하이테크) 투자 유치를 우대
- 베트남 2020년 투자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회사의 정의 수정, 더욱 명확한 투자조건 제시, 투자 절차 간소화 등 일부 수정
 - 개정 투자법(Law No. 61/2020/QH14)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
- 다만, 최근 노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 의무가입, 노동 비자 발행요건 강화 등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 진출 이후 추가 행정절차 및 비용이 발생 중

- 사회보험의 경우 연금보험료 이중부담 면제, 연금 가입 기간 합산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한-베 사회보험 협정이 국회 비준을 통해 2-3분기內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진출 예정 기업은 관련 협정을 지속 관찰할 필요가 있음

VI. 한-베 교역 동향 및 특징

□ 한-베 교역 동향

- 베트남은 우리나라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 '21년 한국의 對ASEAN 교역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2%이며 그 외 투자, 인적교류, 관광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제1의 협력 국가로 자리 잡음
 - 양국 간 협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제조업뿐 아니라 유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의 ASEAN 국가별 교역 비중(2021년)



자료: TriBIG KOTRA 호치민무역관 정리

-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 3대 수출 시장으로 부상한 베트남
 - 베트남은 한국의 3대 수출시장(중국, 미국, 베트남 순)이자 4대 교역국(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순)으로 한국의 매우 중요한 교역 파트너
 - 양국 교역은 1992년 수교를 맺은 이후 2021년 806억 달러 교역액 달성
 - 우리나라는 대베트남 무역을 통해 매년 큰 액수의 무역흑자 기록 중

- 한국-베트남 FTA는 ‘15년 12월에 발효돼 ‘22년 7년 차를 맞이하였고, ‘22년 1월 RCEP이 발효됨에 따라 한국과 베트남이 체결한 FTA는 한-베, 한-아세안, RCEP 총 3개임
- 베트남의 세계 시장 편입 추세(EVFTA, CPTPP 등)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의 베트남 시장 진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베트남의 해외 수출 시장 접근 및 품목 다양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우리나라 10대 수출대상국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18		2019		2020		2021	
중국	162,125	중국	136,202	중국	132,565	중국	162,913
미국	72,719	미국	73,343	미국	74,116	미국	95,902
베트남	48,622	베트남	48,177	베트남	48,511	베트남	56,729
홍콩	45,996	홍콩	31,912	홍콩	30,654	홍콩	37,467
일본	30,528	일본	28,420	일본	25,098	일본	30,062
대만	20,783	대만	15,666	대만	16,465	대만	24,285
인도	15,606	인도	15,096	인도	11,937	인도	15,603
필리핀	12,061	싱가포르	12,768	싱가포르	9,828	싱가포르	14,149
싱가포르	11,782	멕시코	10,927	독일	9,576	멕시코	11,290
멕시코	11,458	말레이시아	8,843	말레이시아	9,078	독일	11,110

자료: 관세청

□ 주요 수출 품목

-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 진출이 확대되며 이들의 현지 생산 활동을 위한 기계·설비류 및 원부자재 수출도 증가
-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은 중간재·자본재의 비중이 소비재보다 높음
 - 특히 한국의 대베트남 최대 투자 산업인 전기·전자 관련 품목 비중이 높음
 - 주요 품목은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기구부품, 석유제품 등

- 한국-베트남 무역 거래 시 한-베트남 FTA 또는 한-아세안 FTA, RCEP 중 특혜관세 혜택이 유리하고, 베트남에서 가공 후 수출할 대상국을 고려하여 FTA를 선택해야 함.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품 목 명	2018	2019	2020	2021
반도체	10,939(18.5)	10,730(-1.9)	11,501(7.2)	14,024(21.9)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8,909(20.9)	7,970(-10.5)	9,552(19.9)	12,050(26.1)
무선통신기기	2,632(-19.9)	2,933(11.4)	3,467(18.2)	3,315(-4.2)
기구부품	2,332(-10.8)	2,230(-4.4)	2,250(0.9)	2,405(7.3)
석유제품	1,980(-0.4)	2,194(11.0)	1,195(-45.6)	1,158(-3.2)
합성수지	1,659(15.1)	1,624(-2.1)	1,615(-0.6)	2,415(49.5)
플라스틱 제품	1,205(4.6)	1,210(0.4)	1,115(-7.9)	1,174(5.3)
편직물	1,106(-1.0)	996(-10.0)	851(-14.6)	931(9.4)
철강판	1,049(6.5)	1,158(10.4)	1,052(-9.1)	1,267(20.4)
광학기기	944(18.9)	946(0.2)	947(0.1)	760(-20.1)
기 타	15,874	16,187	14,998	17,227
합 계	48,629	48,178(-0.9)	48,543(0.8)	56,726(21.9)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3단위 기준)

□ 주요 수입 품목

- '21년 기준 한국의 대베트남 5대 수입 품목은 무선통신기기, 의류, 컴퓨터, 신변잡화,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임
 - 특히 의류, IT기기, 신변잡화 등의 공산품은 베트남에 소재한 한국 투자 기업들로부터 역수입이 주류를 이룸
- 아울러 베트남의 다양한 농·수산물도 한국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한-베 FTA에 따른 관세 혜택으로 교역 품목이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품 목 명	2018	2019	2020	2021
무선통신기기	4,835(21.4)	5,691(17.6)	4,980(-12.5)	5,579(12)
의류	3,570(24.2)	3,646(2.1)	3,146(-13.7)	3,393(7.9)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137(88.3)	1,197(5.2)	1,027(87.1)	876(-14.7)
신변잡화	980(23.1)	1,053(7.4)	1,029(-2.2)	983(-4.5)
목재류	793(55.1)	657(-17.1)	632(-3.9)	755(19.5)
컴퓨터	534(-4.6)	679(25.9)	1,270(87.1)	1,659(30.6)
기구부품	445(-10.4)	512(15.1)	481(-5.9)	624(29.6)
산업용 전기기기	416(31.1)	479(14.8)	574(20.0)	725(26.2)
반도체	396(5.8)	471(19.1)	561(18.9)	750(33.8)
영상기기	329(25.6)	356(-2.0)	406(14.0)	460(13.2)
기 타	6,197	6,330	6,473	8,162
합 계	19,632(21.4)	21,071(7.3)	20,579(-2.3)	23,966(16.5)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3단위 기준)

VII. 투자 환경 및 입지 여건

1. 투자 환경

□ 강점 및 기회요소

- 정치사회적 안정성
 - 베트남은 중국, 인도 및 ASEAN 국가 중 정치사회적으로 가장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베트남은 공산당 1당 체제이며 유교문화권 국가로 종교적인 갈등이 거의 없음
- 비용 경쟁력이 높고 풍부한 노동력
 - 동남아 국가 중 3번째로 많은 인구, 높은 젊은 인구 비중(만20~39세 인구 32.5%) 등 미래발전형 인구 구조를 가졌으며, 문맹률이 3% 미만임
 - 유엔인구기금(UNFPA)은 베트남이 '황금 인구구조'*로 진입했다고 평가
 - * 만 16~59세의 노동 인구수가 비노동 인구의 두 배 이상인 시기
 - 또한 대체로 근면성과 손재주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며, 경쟁력이 높은 인건비 역시 외국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
- China Risk 회피를 위한 대체 생산거점
 - 중국의 인건비 상승, 환경 등 각종 규제 강화,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 등 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 추세. 이에 중국에 진출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대체 생산기지로 베트남을 주목
 - 일본 기업들은 China+1의 전략 하에 캐논 등 많은 전자부품회사들이 진출했으며, 삼성과 LG 등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역시 베트남에 진출함
 - 특히 베트남은 최근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중국으로부터 생산기지 이전 반사이익을 받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 높은 경제 성장률과 소득 증가에 따른 시장 유망성
 - 베트남의 1인당 GDP는 2008년 1,000달러대를 진입한 후, 2018년 2,500달러를 넘었으며, 이에 따라 구매력이 역시 확대되고 있음
 - 2025년 전후 현지 인구가 1억 명을 돌파하며 거대한 내수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

- 투자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
 - WTO 가입 이후 서비스 개방 일정에 따라, 유통, 무역,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가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외국인 차별을 줄이는 등 베트남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 지속 중
- 적극적인 무역 및 경제 협정 참여에 따른 성장 잠재력
 - 베트남은 총 15개 FTA를 체결 발효 중으로, ATGIA(아세안상품무역협정), ACFTA(중-아세안), AKFTA(한국-아세안), AJCEP(일본-아세안), VJEPA(일본-베트남), AAANFTA(베트남-호주-뉴질랜드), AIFTA(인도-아세안), VCFTA(칠레-베트남), VKFTA(한국-베트남), VEFTA(EU-베트남) 등의 다양한 양자간·다자간 FTA를 체결해 글로벌 경제 편입 속도를 가속화 중
 - 또한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발효, EU-베트남 FTA 발효, RCEP 발효 등 시장 개방이 지속 확대 되어 이로 인한 다양한 사업기회들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됨

□ 약점 및 위험요소

- 인프라 부족
 - 도로, 항만, 전력 등 사회 기반시설 공급이 외국인 투자 수요 대비 부족하며, 서비스 품질도 개선의 여지가 큼
 - 인프라 구축 비용 대부분을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의 공적개발원조로 충당해왔으며,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등 인프라 완공 일정이 변경되곤 함
- 고급인력 부족
 - 하노이 및 호치민시 인근을 제외하고는 외국어 능숙자 및 중간관리 인력 확보가 수월하지 않음
 - 베트남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높아 숙련되고 고등 교육을 이수한 양질의 노동력 확보가 어려움
 - 특히 최근 첨단기술 및 전문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전문 인력 수요도 늘고 있지만 인력 공급은 제한적

- 복잡한 행정절차, 행정 체제 미흡 및 커미션 문화
 - 베트남 법령은 세부 시행규칙 및 안내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 담당 공무원의 유권 해석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또한 지역별 법규 적용에 차이가 있어 투자 활동 시 행정체계로 인한 어려움이 존재함
 - 또한 많은 거래 관계에서 비공식적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문화가 있어, 복잡한 행정절차로 Under Table Money 관행을 종종 발견할 수 있음
 - 베트남 현정부는 부패방지법 개정(2019년 발효)을 통해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 내용을 강화하는 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 중

- 투자 및 경영비용 증가
 - 최근 몇 년간 외국기업들의 베트남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공장 설립에 필요한 토지임차료, 인건비 등 투자 진출 관련 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 추세
 - 베트남 정부에서 물가억제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나 경제성장 및 FDI 증가로 투자 비용 상승세는 계속될 전망

- 부품 및 원부자재 수급 애로
 - 지금까지 대베트남 외국인 투자는 대부분 단순 임가공 형태를 보였으므로 베트남은 부품·소재 등의 기반산업이 매우 취약함
 - 원부자재 수입관세가 매우 낮거나 면제된다 하더라도 원자재 적시 공급 및 물류비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함
 - 국내 원부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베트남 정부는 부품·소재산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 아직은 낮은 소비력과 가격 중심 시장
 - 9,800만 명 이상의 풍부한 인구와 소비자 개인의 경제 수준은 별개이며, 이들의 소비 규모가 성장하기까지 투자금 투입과 시간 인내가 지속 요구되는 시장임을 고려해야 함
 - 일부 지역(특히 중앙정부직할시)의 소득 수준은 국가 평균 대비 2~3배가량 높음. 지하경제까지 고려한다면 현지 일부 지역의 소비자 심리는 표면에 드러난 평균 소득에 한정돼 있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 베트남인의 평균 소득 수준은 연간 3,000달러 수준이며 지역별 소비자의 경제력에 큰 편차가 있다는 시장의 이면을 감안해야 함

2. 입지 선정

□ 고려 요소

- 물류여건
 - 항만, 도로사정이 열악하며, 국내 물류시스템이 미흡해 부품원자재 및 상품의 하역·운송 등의 물류여건이 좋지 않음
 - 내륙에 위치한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운송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주장하나 실제 방문을 해보면 물류 이슈가 자주 발생함
- 인프라 정비
 - 대부분의 산업공단(IZ, IP)은 비교적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음.
 - 외곽으로 나갈수록 토지 임차료는 저렴하지만 인프라 미비로 예상치 못한 경비가 발생함
- 노동인력 수급
 - 산업발전과 외국인 투자 증가에 따라 노동력 인력수급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함
 - 특히 주변 공장 완공 시 노동력 확보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며, 이는 인건비 상승문제로 이어짐
- 현지 자재와 부품조달의 용이성
 - 현지 원부자재 공급지가 원거리에 위치해 있는 경우, 운송비용이 과다해 채산성 확보가 어려움
 - 입지 선택 시 진출업종에 소요되는 부품과 자재를 인근 지역에서 용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함
- 기타 고려요소
 -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극성 및 배후시장 여건
 - 환경오염유발 산업에 대한 투자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함

□ 투자 지역 선정

○ 남부지역 vs 북부지역

베트남 남부, 북부지역 비교

구 분	장 점	단 점
남부 (호치민시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 문화 발달 - 높은 1인당 GDP (약 6,000~7,000달러 추정) - 자본주의적 비즈니스 관행 - 섬유, 신발 산업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상승 추세 (호치민시 인근) - 높은 토지 임차료 (호치민시, 동나이 등) - 인력확보 애로(호치민시 인근)
북부 (하노이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정부의 수도 개발 계획 (특히 건설 인프라 분야) - 전기 전자 산업 발달 - 중앙정부 접촉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정비 미흡 - 인력 수급 문제 - 남부 대비 낮은 소비력

○ 공단지역 vs 일반지역

- 공단지역은 일반지역에 비해 기반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고
공단관리위원회가 인허가 수속을 대행함. 다만 임차료가 높고 관리비를
부담해야한다는 단점이 있음
- 일반 지역은 공단에 비해 인프라 또는 사업여건이 다소 낙후해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토지를 임차할 수 있음. 다만 토지 임차료와 별도로
임차면적에 따라 일정액의 토지보상비를 지방 정부에 지불해야 함. 사유지는
토지용도, 증빙 서류 확인 등 행정부분에서 주의를 요함
- 외국인 투자 기업은 정책적으로 공단 외 지역 투자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따라서 공단 이외 지역에 투자한다면 반드시 해당 인민위원회에 허가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투자 절차를 진행해야 함

공단과 일반지역 입주 조건 비교

구 분	승인기관	장 점	단 점
공단	지방정부 공단관리 위원회	- 인프라 기반 - 인허가 수속 대행 - 물류여건 양호 - 토지보상비 부담 없음 - 세관입주 공단은 수출입 통관 편의	- 높은 토지임차료 - 관리비 부담
일반 지역	지방 인민위원회 기획투자부 (DPI)	- 저렴한 토지임차료 - 인력확보 용이 - 비교적 낮은 인건비	- 인프라 정비 미흡 - 인허가 수속 직접수행 - 물류여건 낙후 - 토지보상비 부담 - 부대비용 발생 가능

○ 경제특구(EZ, Economic Zone)

- 경제특구는 기존의 투자사업 환경과 분리된 투자자를 위한 특별우대 지역으로, 베트남 총리가 지정하며 국가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중부 지역에 밀집
- 경제특구는 산업제조, 서비스, 관광, 엔터테인먼트, 상업, 은행, 금융의 허브 역할을 위한 특구이며, 규모는 10,000ha 혹은 그 이상
- 비관세지역, 관세지역, IZ, EPZ, 관광지역, 도시지역, 복합주거지역, 행정 본부 지역 등 다양한 기능적 성격을 띤 지역으로 구성
- 지역에 따라 우대혜택 적용이 다소 차이가 있어 사전문의 필수

○ 법인세 우대사항

- 베트남의 표준법인세율은 20%임(단, 석유와 천연가스 사업,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 채굴 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32~50%의 법인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법인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은 투자 분야, 지역 등에 따라 차등 부여되며, 일반적으로 공단에 신규로 설립되는 제조법인은 과세소득 발생 연도로부터 최대 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최대 4년간 법인세 50% 감면 가능
- 그러나 해당 공단이 사회-경제 우수지역에 속하면 법인세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전에 공단관리 사무소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함

VIII. 기타 유용한 정보

□ 시장 특성

- 풍부한 인구와 높은 성장잠재력 보유
 - 9,800만 명에 육박하는 풍부한 인구와 매년 6~7%씩 꾸준한 경제 성장으로 시장 규모 지속 확대 중
 - 특히 젊은 20~30대 및 소득이 높은 40대 비율이 높으며 이러한 특성은 베트남 경제 성장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25년 전후 인구 1억 돌파하여, 인도차이나 반도 중심국으로 성장 기대
- 민영화 진전 불구 국영기업 영향력 여전
 - 베트남 국영기업은 현지 시장에서 50~6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
 - 특히 전력, 통신, 석유·가스, 방송 등의 분야에서 거의 100%에 달하는 독점적 구조를 형성함
 - 베트남 정부가 최근 공표한, '2021~2025년 기간 국유기업 및 국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매각 또는 지분 이전 시 국유지분 보유비중 분류'에 따르면, 항공, 은행, 광산 등 주요산업분야의 국영 기업들이 민영화를 추진하더라도 베트남 정부가 정관자본의 65%를 지분으로 보유하기로 결정됨
- 주요 대도시에 경제력 및 구매력 집중
 - 지역별 소득 격차가 심해 고가 브랜드 제품 수요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생함
 - 베트남 인구 중 18%가 북부 하노이, 남부 호치민시에 분포해 있으며 두 도시 소득은 현지 평균 대비 1.5배 높음.
 - 경제 중심지인 호치민시의 1인당 소득은 연간 약 6,700달러로 추정됨. 이는 베트남 평균의 2~3배 수준
- Low/High가 뚜렷한 시장
 - 1인당 소득이 3,000달러 수준에 불과하지만 두터운 고소득층이 존재해 고가품 시장이 발달함. 하지만 대부분 소비자들은 여전히 가격에 민감
 - 소비재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현지 경제 성장 및 소득 증가로 무조건 저렴한 제품보다는 품질이 좋고 가성비가 강조된 제품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 높은 브랜드 선호도 및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 일반적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현지 소비자들의 브랜드 충성도가 높음
 - 한류 문화가 성숙한 국가 중 하나로 한국 상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음
 - 특히 TV,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제품 인지도가 높으며 삼성(휴대전화, 가전 등), LG(가전, 화장품, 생활용품 등), 현대·기아(자동차) 등 베트남에 생산 시설을 투자한 주요 기업들이 현지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짐
 - 한국 브랜드 및 기타 유명 브랜드 제품의 모조품 또는 위조품 등이 많이 유통되고 있으나, 지재권 보호 관련 현지 정부 차원의 규제 개선 여지가 큼

- 아세안 10개국 제품 수입 시 무관세 적용
 - 아세안 수입 제품은 아세안물품무역협정(ATIGA) 적용으로 대부분 0~5% 이내의 낮은 관세가 부과됨.
 - 한국산 제품(특히 소비재)은 AKFTA(한-아세안, 2007년 발효), VKFTA(한-베, 2015년 발효), RCEP(2022년 1월 발효)적용으로 일반특혜관세(MFN)에 비해 낮은 관세를 적용받지만 ATIGA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관세 적용 대상임

- 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인한 수출 확대 전망
 - 농수산물 수출기업들이 RCEP 발효로 인해 일본 중국 시장 진출 확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시장의 경우 수출이 허용되지 않았던 두리안, 패션 후르츠, 자몽 등 과일 및 채소 제품이 수출이 가능해짐
 - RCEP을 통해 일본, 한국, 중국이 섬유산업 지역 공급망의 주요 공급자로 견고화되고, 베트남을 포함한 ASEAN 지역이 생산기지로서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에 따라 RCEP 회원국 사이 섬유 및 의류 공급망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 기후 특성

- 베트남은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지형 특성상 남과 북의 기후 차이가 큰 편이며 강우량은 전국적으로 연평균 1,800mm 수준
 - 호치민시를 비롯한 남부 지역은 우기(5~10월)와 건기(11~4월)가 6개월씩 교차되며, 수도 하노이를 비롯한 북부 지역은 미묘한 4계절의 변화가 있어 연말과 연초 기후가 한국의 늦가을 날씨와 유사

- 북부 지역은 아열대로 연간 온도 차가 커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 차가 약 20°C에 달하는 지역도 있음. 남부 지역은 열대 몬순기후로 연간 온도 차가 크지 않아 연간 최저 및 최고기온 차는 약 7°C
- 호치민시는 연중 30~35°C의 고온을 유지하며, 건기 또는 우기에 맞는 복장 준비가 필요함.
 - 건기(11월~4월) : 여름 의복에 모자나 양산을 준비하면 도움이 됨
 - 우기(5월~10월) : 게릴라성 호우가 잦아 우산이나 비옷을 준비하면 도움이 됨

□ 시차 및 근무시간

- 베트남은 GMT+7시간으로 한국보다 2시간 늦음
 - 한국이 12:00일 때 베트남은 10:00
- 관공서와 은행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지만, 일반 사기업은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곳들이 존재
 - 근무시간은 일반적으로 관공서의 경우 07:30~16:30이며, 일반 기업은 08:00~17:00
 - 점심시간은 대개 11:30~13:00 또는 12:00~13:30이며, 점심시간 오침 문화가 있음
- 상점과 식당 등 업소의 영업시간은 일반적으로 08:00에서 22:00까지며, 야간 업소의 경우 24:00까지 영업

□ 현지 활동 참고사항

- 출입국
 - 한국인은 베트남 출국 항공권 및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을 소지한 경우 15일간 무비자 입국 가능하며, 무비자 입국 후에 현지에서 연장을 하려면 여행사 보증이 필요
 -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중단되었던 외국인 무비자 입국이 '22년 3월 15일부터 전면 재개되었으며,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에 대해서 15일 무비자 입국 정책이 재개
 - 베트남은 2017년 2월부터 온라인 비자(e-Visa)를 시행하고 있음
 - 베트남에서 출국 시 최대 휴대 가능한 금액은 5,000 미국 달러

- * 참고: 호치민시 출입국 관리 사무소
 - 주소: 161 Nguyen Du St, D.1, Ho Chi Minh
 - 전화: (84-28) 3829-9398
 - 팩스: (84-28) 3824-4075

○ 교통

- 버스와 택시가 가장 일반적인 대중교통 수단이나, 버스는 외국인이 이용하기 까다로울 수 있음. 지하철은 현재 공사 중
- 택시 요금은 미터제로서 기본요금은 11,000~12,000동으로 회사마다 상이함(공항에서 시내까지 약 15~20만동 : 6~9불 수준)
- 주요 택시회사로는 Mai Linh(녹색바탕, 38383838 번호 표시)택시와 VINASUN(하얀 바탕, 하부 녹색, 38272727 번호 표시) 택시가 있으며, 최근 모바일 어플로 택시를 부르는 것이 가능해짐
- 최근에는 목적지 및 금액이 정해진 그랩(Grab), 타다(TADA), 비(Be) 등 차량 공유 모바일 앱이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환전 및 신용카드

- 화폐 단위: Vietnam Dong(동, VND로 표기)
- 화폐 종류: 천동, 이천동, 오천동, 만동, 이만동, 오만동, 십만동, 이십만동, 오십만동이 있으며, 모든 지폐에는 호치민 초상이 있음
- 환전은 공항, 호텔, 은행 및 시중에 설치된 환전소 등에서 환전할 수 있으며, 은행 환전을 제외하면 여권 없이도 환전이 가능
- 카드 결제는 호치민시, 하노이와 같은 대도시 중심으로 점차 확장 중. 다만, 아직 소규모 카페나 식당에서는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곳이 종종 있음

○ 위생 및 질병

- 석회질이 다량 포함된 현지 수돗물 대신 생수 사용을 권함
- 식당에서 음료, 맥주를 시키면 얼음을 넣어 주는데 위생이 걱정된다면 주문 전 얼음을 넣지 말라고 요청해야 함
- 열대숲모기에 물리면 이를 매개로 고열을 동반하는 열성 급성질환인 뎅기열(Dengue Fever)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해야 함

○ 치안

- 베트남은 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안이 좋은 편에 속하나 보행 중 오토바이 날치기, 강도, 주거상가 침입, 소매치기 등 각종 절도 범죄가 발생
- 야간에는 단독 행동을 삼가고 골목길을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매춘, 마약, 도박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절대 금물

○ 부가가치세(VAT) 10%에서 8%로 인하

- 베트남 국회는 2022년 1월 11일 부로, 사회경제적 회복 및 발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8%로 인하함.
- 그러나 통신, 정보기술, 금융서비스,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거래, 정제석유, 금속, 화학제품 관련 상품 및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인하 목록에서 제외됨.

○ 팁 관행

- 베트남에는 팁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으며, 택시 이용 시 별도의 팁을 줄 필요는 없음
- 호텔 벨보이나 메이드에게 주는 팁은 2만~5만 동(1~2.5 달러 정도) 선임

□ 기타 주의 사항

○ 선교·포교활동 금지

- 베트남에서 모든 외국인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나, 현지 풍속 및 관습에 심하게 위반되는 종교 집회 또는 노상의 종교 활동은 베트남 정부가 엄격히 통제함
- 특히 외국인이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또는 포교행위는 절대 금하고 있으며, 발각 시 추방 등 강경제재 조치를 받게 됨

○ 관공서 관행

- 베트남 관공서의 업무처리 방식은 아직 많은 외국인들에게 만족도가 높지 않음. 특히 잦은 서류 보완 요청, 고자세, 불친절한 태도 등으로 불만을 야기

참고 호치민시 식당 정보 및 주요 관광지

□ 한식당

식당명	주 소	전 화
최고집(한식)	161 Ham Nghi, Dist,1	(84-28)3914-2005
경복궁(한식)	52 Hai Ba Trung st, Dist,1	(84-28)6682-7249
본가(한식)	45 Ly Tu Trong st, Dist,1	(84-28)90-1317335
아리랑(한식)	3rd Fl, 2 Dong Khoi St, Dist,1	(84-28)3823-1983
청담육화점(한식)	63 Ho Tung Mau, Dist,1	(84-28)6275-3273

□ 베트남 식당

식당명	주 소	전 화
Nha Hang Ngon	160 Pasteur, Dist.1	(84-28)3827-7131
Quan Nem	15E Nguyen Thi Minh Khai, Dist,1	(84-28)6299-1478
Dong Pho	57 Ho Xuan Huong Dist,3	(84-28)3930-7665
Propaganda	21 Han Thuyen, Dist.1	(84-28)3822-9048
Pho2000	1-3 Phan Chu Trinh, Dist.1 (2nd Floor)	(84-28)3822-2788
Pho Hoa	260c Pasteur St, Dist.3	(84-28)3829-7943

□ 호치민시 인근 주요 관광지

구분	사진	주요 포인트	거리
통일궁 (Dinh Doc L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5 Nam Ky Khoi Nghia, Dist 1, HCMC 과거 남베트남(자유진영)의 대통령궁으로 현재는 개방되어 관광지, 회의장소로 사용 8:00~17:30 개장(연중무휴) 관람시간은 평균적으로 약 1시간 소요 입장료(성인) : 40,000VND(약 1.7 달러) 	호치민 시내 (10분)
전쟁 박물관 (Bao Tang Chien Tranh)		<ul style="list-style-type: none"> 28 Vo Van Tan, Dist 3, HCMC 프랑스 식민지배 당시 단두대를 비롯해 베트남 전쟁 때 사용되었던 각종 유물 전시 고엽제 피해 및 전쟁의 잔학상을 고발하는 수많은 화보가 있음 7:30~16:30 개장(연중무휴) 입장료 : 40,000VND(약 1.7 달러) 	
호치민 박물관 (Ben Nha Ro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Nguyen Tat Thanh, Dist 4, HCMC 호치민이 생전에 사용하던 각종 유물 전시 프랑스와 중국의 건축양식을 조화시켜 1863년에 완공했으며 한 때 프랑스 총독부 영빈관으로도 사용 7:30~11:30, 13:30~17:00 개장(화~토) 입장료 : 2,000VND(약 0.09 달러) 	
노틀담 성당 (Nha tho Duc Ba)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Cong xa Paris, Dist 1, HCMC 1880년에 세워진 호치민시 최대성당 프랑스 식민지배 당시 건축자재를 모두 프랑스에서 공수해 파리 노틀담 성당을 본떠 만들 8:00~10:00, 15:00~16:00 개장(매일) 	
다이아몬드 플라자 (Diamond Plaza)		<ul style="list-style-type: none"> 34 Le Duan, Dist 1, HCMC POSCO가 지은 호치민시 랜드마크 빌딩 1~5층은 백화점이며 나머지는 오피스 및 아파트 KOTRA호치민 무역관 7층 입주 	
비텍스코 (Bitexco)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Hai Trieu, Dist 1, HCMC 현대건설이 지은 초고층(68층) 빌딩 스카이라운지를 통해 호치민시를 한 눈에 조망가능 라운지입장료 : 200,000 VND(약 8.5 달러) 	

구분	사진	주요 포인트	거리
벤탄 시장 (Cho Ben than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 Loi, HCMC ■ 유명한 재래시장으로 전통적 관광명소 ■ 의류부터 식료품까지 다양한 제품 판매 ■ 저녁 7시 이후 주변에 야시장(식당, 기념품)이 열림 * 코로나19 이후 야시장 포함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가게가 증가함 	호치민 시내 (10분)
사이공 스퀘어 (Saigon Sqa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7~89 Nam Ky Khoi Nghia, Dist 1 ■ 7 Ton Duc Thang, Dist 1, HCMC ■ 176~181 Hai Ba Trung, Dist 1, HCMC ■ 우리나라의 밀리오레와 유사한 쇼핑센터 ■ 명품 이미테이션 등을 주로 판매 * 코로나19 이후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가게가 증가함 	호치민 시내 (10분)
구찌 터널 (Dia Dao Cu Ch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 Chi Dist, HCMC ■ 베트남 전쟁 당시 게릴라전에 사용된 터널 ■ 현재는 관광용으로 개방되어 있으며 당시 보다는 터널 크기를 다소 크게 조정한 상태 ■ 입장료 : 외국인 80,000 VND(약 3.5 달러) 	5시간 (왕복)
메콩 델타 (Mekong Del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최대의 곡창지대 (벼의 3모작 가능) ■ 조그만 배를 타고 메콩 델타의 곳곳을 구경한 후 간단한 기념품 구매 가능 ■ 투어 비용 : 약 400,000 VND(약 17.5 달러, 호치민시 여행자 거리 출발) ■ 여행자 거리 : Pham Ngu Lao st, De Tham st, Dist 1, HCMC 	5시간 (왕복)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